

01.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시작

아마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과외를 시작한지 한 4년차 정도였고, 그 때 즈음 들었던 생각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동안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렵고 쉬운 것은 사소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니까

쉬운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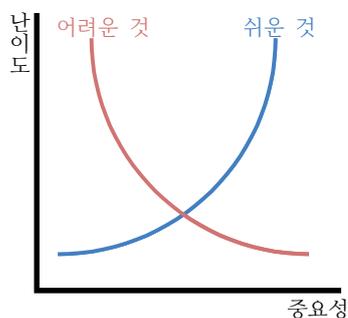
시험의 목적은 누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틀릴 만한 것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어려운 것은 중요하고 쉬운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 과외 및 교육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배우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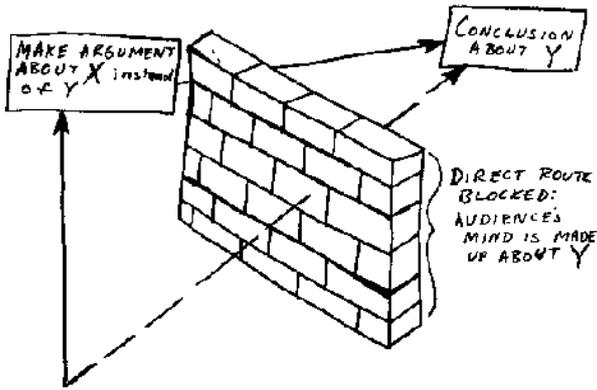
처음 배우는 것들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반이며,
그 기반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단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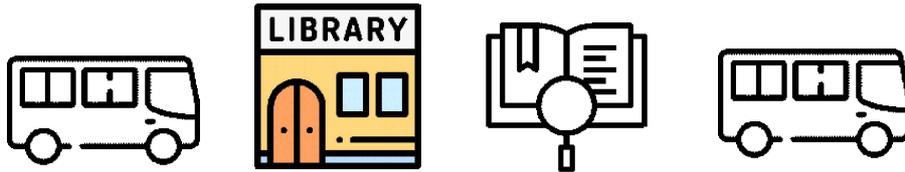
02. 단어 공부의 시작

한편 우리는 매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시대를 낫설게 바라보죠.



우리가 인터넷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검색엔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색엔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다면,
여러분이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어대사전이 있다면 한 15분정도 찾아보면 될테지만,



- 사전이 없다면, 도서관에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30분정도를 책을 뒤질 것이고, 그리고 또 똑같이 책에서 모르는 단어에 대한 뜻을 15분 동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1시간이 또 걸린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글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
할 것 같은 단어들을 머릿속에 우겨넣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검색엔진이 있는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1분밖에 안 걸리고 그것은 굳이 머릿속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다름없지 않게 됩니다.

실제 내 머리 속에 있는 지식을 말할 때 1분 이상 걸릴 때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때때로 중간에 깜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문을 읽기 전에 정말 많은 단어를 공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초적인 교양만을 알고 있어도

수많은 단어장을 외우지 않더라도

검색엔진에 검색만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3. 통계와 단어공부

그래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 덕분에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정확히 모르는지만 알고 있다면,
사실상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1분이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초적인 교양이라고 할만한, 기초적인 단어까지 모른다면 너무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들은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될 지를 스스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 드리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번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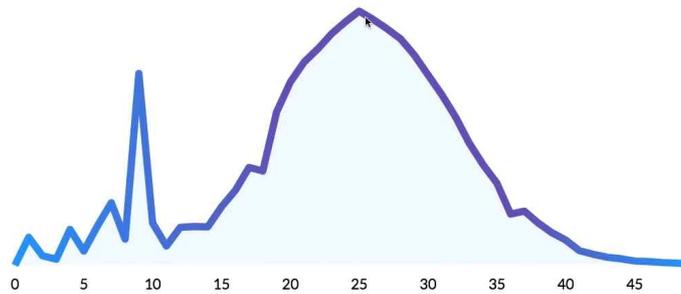
제가 한 1년 전까지 코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전세계의 거의 모든 웹페이지를 분석합니다.

옛날에 중요한 통계들을 예전에 구글에서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페이지가 안타깝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누군가 그 정보를 백업했고,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advancedwebranking.com/

(지금은 어느 곳에서 이 도메인을 사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html에 대해서 거기에서 정리된 그래프가 있는데, 전 세계에 수많은 웹 사이트들이 몇 가지 종류의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통계로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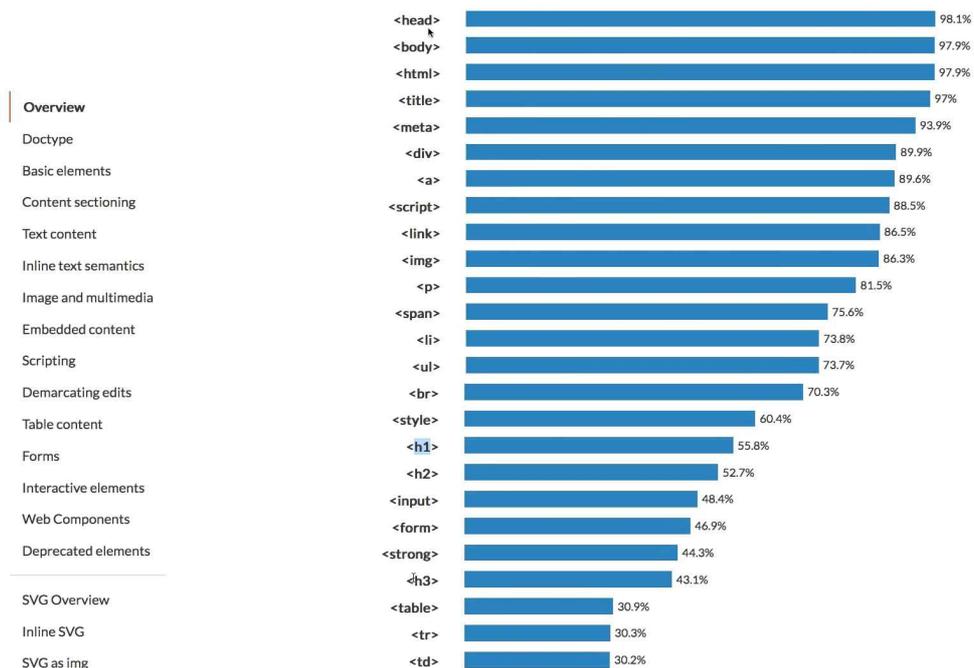
Apparently, an average web page uses **twenty-five** different element types:



이 통계를 봤을 때, 약 25~26 정도의 태그를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중에서 약 26개 정도의 태그를 알고 있다면 웹페이지 구성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막대그래프는 여러 태그들이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랭킹이 정리된 것입니다.

And the **twenty-five** elements used on the most pages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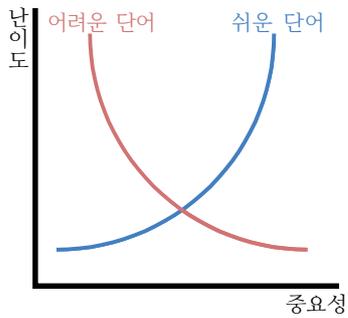
그리고 이처럼 정리된 기초적인 태그들이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됩니다. 즉, 기초적인 것들은 사용되는 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어려운 것들이 더 복잡하고 대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것들이 뭉탱이로 모여서 결국 어려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렵고 스킬적인 측면은 분명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편리하지만, 응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것들을 응용하면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것은 편리할 수 있지만, 기초적인 것은 어떤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기초적인 단어를 갖추지 못한다면 어려운 단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뿐더러, 해당 단어와 연관된 기초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오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통계적 빈도에 기초한 단어 분석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